

발행처 : 화성시 동탄2동 주민자치센터 | 제보 : 0707wisdom@naver.com | 만든사람 : 동탄2동소식지 기자단 1기

동탄2동 사랑의 나무 후원신청 및 안내



▲ 동탄2동 모의주민총회 단체사진



▲ 동탄2동 모의주민총회 개최장

주민의 역할을 스스로 찾아 나서기 위한 동탄2동 모의주민총회 개최 주민투표를 통해 우리 마을의 의제를 찾아보는 시간

지난 12월 10일 오전 10시 동탄2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동탄2동 모의주민총회가 동탄2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마을축제로 진행되어야 하는 동탄2동 모의주민총회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확진자 증가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대면과 온라인 줌을 통한 비대면으로 동탄2동 모의주민총회가 진행되었다.

모의주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11월 18일(목)~12월 3일(금) 까지 16일 동안 인터넷투표를 비롯하여 동탄2동 행정복지센터 1층 입구와 관내 동탄농협 하나로마트 1층에 모의주민총회 안내 배너와 스티커투표용 판넬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동탄2동에 필요한 마을의제를 찾아 스티커를 붙이는 투표를 진행했다.

또한 모의주민총회준비위원회 위원들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판넬을 들고 다니며 동탄2동의 나루마을 상가, 노작마을 거리, 새강마을 목요장 등 찾아가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자치화에 대한 설명과 마을에 필요한 의제를 찾기 위한 주민들의 투표율을 높였다.

동탄2동 22개통 통장단협의회 통장들의 협업도 이루어 졌는데, 동탄2동 각 아파트별, 마을별로 모의주민총회를 위해 아파트 게시판과 놀이터 등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표를 받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다.

이 날 총 투표수는 5711표였으며 이중 5위는 총 333표(5.8%)의 투표수를 받은 생활노하우교육이며, 4위는 369표(6.5%)의 투표수를 받은 마을해설사운영이다. 3위는 1246표(21.9%)의 투표수를 받은 동탄2동 마을입구 꽃길만들기이며, 2위는 1267표(22.1%)의 투표수를 받은 노작마을 주변 벚꽃축제이다.

동탄2동 주민이 모의주민총회를 통해 선정된 대망의 1위는 2496표(43.7%)의 투표수를 받은 아나바다플리마켓이 선정되었다.



▲ 주민모의주민총회 투표결과

이번 모의주민총회는 화성시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으로 동탄2동만의 지역특성에 맞춰 필요한 사업 및 자원을 찾아내고 이를 주민이 직접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통해 화성형 주민자치회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12개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동탄2동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이다.

동탄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모의주민총회를 통해 2022년 새롭게 전환되는 동탄2동의 주민자치회를 미리 경험을 통해 체험해보고 역량을 키워낸 동탄2동의 주민자치회의 새로운 첫걸음을 응원해본다.

후원 신청 및 안내

동탄2동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복지팀 ☎. 031-5189-5045, 4878

동탄2동 모의주민총회 돌아보기



화성시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으로 동탄2동 마을커뮤니티 역량강화 사업이 진행되었다.

소소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담은 동탄2동의 소식지 “소담” 제작을 통해 동탄2동의 주민자치회를 설명하고 동탄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에 앞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도를 높여 주민자치회 참여를 독려하였다.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 기반조성을 위한 주민자치 맞춤형 컨설팅 진행

1.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 주제 선정을 위해 2021.05.04.(화) 지혜연 컨설턴트가 주민자치위원회 19명 위원들과 함께 소식지 발간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준비 현황파악을 진행했다.

이 날 주민자치회 준비과정 및 주민참여 수렴활동과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 홍보를 통해 앞으로의 동탄2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해보는 자리였다.

2. 모의주민총회 과정을 오영식 컨설턴트와 함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간사, 분과장들이 모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전환시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보고 모의주민총회 일정조율, 의제발굴 방법의 구체화, 주민의견수렴 등의 프로세스를 통해 모의주민총회 교육 시간을 가졌다.

3. 모의주민총회 설명을 오영식 컨설턴트와 함께 주민자치위원회 18명의 위원들이 모의주민총회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의 중요성과 의제 발굴 방법의 다양한 방법을 구체화 시키는 자리를 가졌다.

4. 모의주민총회 의제발굴 워크숍을 동탄2동 자치지원관 김가희와 함께 모의총회준비위원회 11명의 위원들이 동탄2동 의제발굴을 위해 똑소리나는 동탄2

동과똑똑한동탄2동을 위해 아이스브레이킹과 지역에 꼭 필요한 모의총회준비위원회 워크숍을 펼쳤다.

5. 모의주민총회 의제발굴과 관련하여 오영식 컨설턴트와 함께 동탄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 모의총회준비위원회 위원들이 모의주민총회 의제발굴과 의제분류를 진행하였으며 이 때 제1차 의제선정이 이루어졌다.

모의주민총회 의제발굴

인터넷으로 접수된 모의주민총회 관련 주민들의 의견과 모의주민총회준비위원회에서 의제발굴을 통해 총 11개의 의제가 발굴되었고, 모의총회준비위원회 투표를 거쳐 8 개의 의제가 상정되었다.

동탄2동은 동탄2동 마을커뮤니티 역량강화사업으로 주민자치회 전환에 앞서 주민자치회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소소하고 따뜻한 이야기 소담 소식지 제작과 주민자치회 전환에 발맞춰 주민자치회 설명회와 모의주민총회개최를 사업계획서로 제출하였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주민자치회 전환에 발맞춰 동탄2동에 맞는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으로 진행되었으며 동탄2동의 모의주민총회를 위해 모의주민총회개최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코로나19상황에 맞춰 모의주민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주민참여방법과 의제발굴을 위한 참여의 중요성을 컨설팅을 통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을 때를 대비하였다.

2021년 동탄2동 7기 주민자치위원회 사업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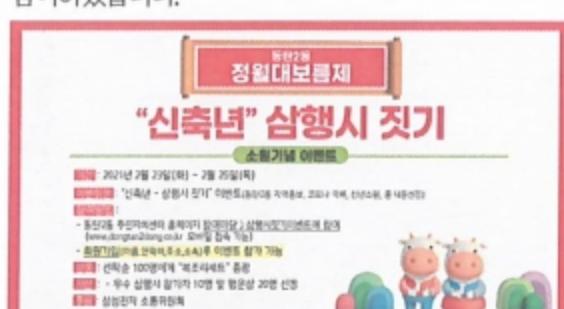
동탄2동 7기 주민자치위원회는 2020년 임기를 시작으로 올해 12월 활동을 마무리한다. 코로나19로 활동에 제약이 많았지만 “마음은 더 가깝게” 온택트(ON TACI)

소통법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온택트 소통법으로 첫번째로 온/오프라인 소식지(소담)을 창간호(1월) 이후 8월 2호, 12월 3호 발간하였습니다. 소식지를 통해 2022년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주민자치의 정보 제공과 다양한 우리마을 이야기 제공하고 모바일 앱(동탄2동 주민자치센터)을 통한 접근성 확대하였습니다.



온택트 소통법 두번째로 동탄2동 정월대보름제를 비대면온라인(언택트, UNI TACI)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고유의 세시풍속인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동민들과의 화합과 번영 기원하고 코로나 극복 및 한해 건강과 소원 기원 이벤트 진행하여 주민 15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온택트 소통법 세 번째로 비대면 온라인(ZOOM, 줌) 프로그램강좌 9개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총 30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신의 지친 마음을 달래고 마을 공방의 활성화를 위해 취미특강과 겨울방학 어린이특강, 반려식물 힐링프로그램 수업도 진행하였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의 동영상 제작하여 강사님들의 동영상 활용준비와 활용과정을 통해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 역량 강화하고 동영상 활용에 참여한 12개 프로그램 중 8개 프로그램을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의 동영상 제작은 소셜 네트워크와 홈페이지를 활용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및 강사진 홍보로 비대면 프로그램 활성화와 참여 유도하였습니다.

온택트 소통법 네번째로 2022년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둔 모의 주민총회 개최하였습니다.

동탄2동 소식지 ‘소담’을 활용해 모의 주민총회 홍보와 의제를 발굴하고 QR코드를 활용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주민총회 의제 제안을 받아 5개 사업 의제 발굴하고, 동탄2동 행정복지센터 앞, 동탄농협에서 현장투표를 진행하고 문자, 홍보지QR코드,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활용한 주민총회 투표 독려하여 12월10일 비대면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온택트 소통법 다섯번째는 독거어르신 비대면 복달임, 1, 2차 방역사업, 독거어르신, 장애인 열무김치 나눔 행사, 독거어르신 야쿠르트 사업(주2회), 동탄보건소 코로나19 위문품 전달, 미용봉사(노인요양원 다정마을), 경로당 오카리나연주, 소담 청소년기자단 환경정화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동탄2동주민자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주민들의 활동 축소를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안전한 주민소통의장을 마련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온라인 참여를 통한 마을활동 참여 연령 확대하고 주민간 소통증가와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작된다... 동탄2동에 다목적체육관 건립’

동탄2동 주민 근거리 수혜 예상

화성시는 반송동 569-2번지 일원 체육공원 1 부지에 실내 체육시설 건축공사 ‘동탄 2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건축공사’를 긴급으로 전자입찰공고(개찰 일시 2021년 11월 25일) 했다. 반송동 569-2번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확보한 자연녹지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체육공원 부지이다. 현재는 체육공원의 토목공사를 진행 중인 상태이고 다목적체육관은 내년에 착공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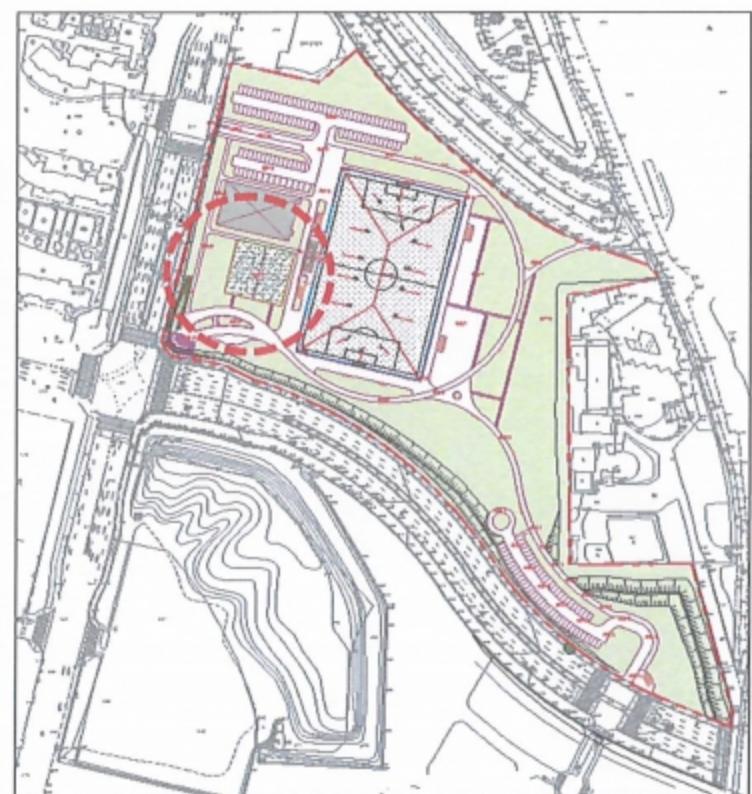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사’는 2019년도에 각 지자체에서 시행한 ‘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모 신청’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10억원)와 행정안전부의 상반기 특별 교부세(4억원), 화성시 지원(32억원)

등 총 46억원의 예산을 확충하였다.

다목적체육관은 연면적 1,100㎡, 지상 1층으로 배드민턴장(4코트), 농구장(1면), 탈의실/샤워실, 관람석, 사무실, 로비, 화장실, 기계실, 전기실 등으로 구성된다. 시설이 건립되면 주민들이 배드민턴, 농구, 탁구, 배구 등의 스포츠를 실내에서 즐길 수 있다. 동탄 2동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근거리 수혜를 누릴 수 있게 되고, 마을 행사나 소규모 프리마켓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모임을 위한 공간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반송동 569-2번지 일원 체육공원1 부지]



[체육공원1 계획 중 다목적체육관 부지]

동탄 2동 다목적체육관은 착공일로부터 360일이 소요될 예정으로 2022년 12월 준공이 예상되고, 완공되면 동탄 2동 주민들의 시민체육활동 활성화와 이후 체육공원 1의 조속한 완성이 기대된다.

다목적체육관은 화성시 공공건축과와 체육 진흥과 부서에서 토지와 건축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시청 담당자(체육 진흥과, 031-3681-2550)는 여건에 따라 사업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를 모두 담을 수는 없어서 행정절차의 지연이 있었지만 공모 제안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진행이 재개되고 있다.

blujone@gmail.com / 안지원기자
kss9811@hanmail.net / 김영철기자



[다목적체육관 조감도]

구 분	규 모(㎡)	내 용
운동시설 영역	750	배드민턴 4코트, 농구장 1면
	750	관리자 사무공간(1개소)
지원시설 영역	20	관리물품 보관창고 등 (2개소)
	30	샤워실 탈의실
공용시설 영역	50	100
	10	장애인화장실 (남녀 각 1개소)
화장실, 복도 기계실, 전기실 등	40	화장실 (남녀 각 1개소)
	15	便桶실 (1개소)
	30	복도 및 홀
	20	휴게공간 (1개소)
	80	기계실, 전기실
	55	관람석
	250	
합 계	1,100	

[실별 규모계획]

2022년 대학수학능력시험 현장을 가다.



2022년 대학 수학 능력시험이 2021년 11월 18일 시행되었다. 동탄 2동에서는 반송 고등학교와 나루 고등학교가 시험 장소로 지정되어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이번 시험일은 따뜻한 11월의 날씨로 수험생을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듯하였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8시 10분 입실 전인 8시에는 거의 마무리되는 분위기였고 교통 혼잡을 생각해서 학교 앞에서 내리기보다는 미리 앞서 내려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거나 조용히 걸어오며 마음을 다스리는 모습들이 보였다. 또한 차량으로 이동하는 학생들 대부분 차분한 분위기에서 경찰들의 지도 아래 질서 정연한 모습으로 수험장을 들어오는 모습이었다. 수험생들과 같이 온 부모님들은 교문 앞까지만 함께 할 수 있었지만, 수험생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자리를 뜨지를 못하였다. 수험생들만큼 긴장되고 애타는 마음이 뒷모습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졌다.

시험이 끝나기 30분 전부터 삼삼오오 학부모님들이 모이기 시작으로 5시가 거의 될 즈음에는 오랜 시간을 고생했을 수험생들을 맞이하려 나온 학부모님들로 다시 수험장 입구는 붐비기 시작하였으나, 시험이 끝나기만을 초조함과

애틋함으로 소란함 없이 조용한 분위기로 아이들을 기다렸다.

동탄2동 반송고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른 이산 고등학교에서는 시험지와 인적 사항 검사 등으로 인해서 30분 이상 늦게 수험장을 나오지 않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졸이게도 하였다. 그러나 첫 번째로 나온 수험생이 밝은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에 기다리던 나의 자식은 아니었지만 모두 같은 마음으로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따뜻한 장면이 보이기도 했다. 반송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 양의 어머니는 고생했을 땐 나오자 반갑게 안아주며 눈물이 보이기도 했다.

"시험의 결과와 상관없이 오늘은 걱정은 잊고 편안한 하루를 보내자"라고 했다. 표정이 밝은 수험생은 "생각보다 시험이 어려워 언어영역 때부터 긴장을 많이 했지만 차분히 시험에 임해서 마지막 탐구 영역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긴장감으로 인해 평상시 모의고사보다 좋은 성적이 아닐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오늘은 부모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며 자지 못한 잠을 꽂 자볼까 한다"라고 했다.

반송 고등학교 다니는 또 다른 수험생 B양 어머니는 "짧게는 3년 길게는 12년간 학교 공부에 몰두한

아이가 이 시험으로 대학을 결정한다는 사실이 슬프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결정에 믿고 이젠 성인이 되는 아이의 첫걸음을 잘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하기도 하였다. 수험생 b 양 역시 "후련함과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수시 결과와 원서 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또한 오랫동안 뒷바라지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오늘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 한다"라고 했다.

매년 11월 고3 수험생과 학부모들만의 시험이 아닌 온 나라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이라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모두들 알고 있을 것이다.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오랜 시간 달려온 수험생 그리고 그 뒤에서 묵묵히 그들을 믿고 힘이 되어주던 수험생 가족 모두에게 칭찬과 격려를 보낸다. 이 시험은 끝이 아니라 성인으로서 이 사회의 구성원이 될 이 땅의 모든 수험생들의 앞날이 누구보다 친란하고 아름다운 시절이 기다리고 있음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응원해 본다.

hebaram76@gmail.com / 성주향 기자

2022 수능만점자 단1명, 동탄국제고등학교 출신

2021년 11월 18일 시행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각종 뉴스를 통해 불수능이었다는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작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6명의 만점자가 나온 반면 이번 수능에서는 유일하게 단 한 명이 그 영광의 주인공,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이번 수능 전 영역에서 만점을 받은 응시자는 고려대 행정학과 재학 중인 김선우(20. 여) 씨인 것으로 파악됐고, 동탄 국제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김 씨는 대학을 입학한 상태에서 재수를 한 반수생이고 이번 수능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장래 포부에 맞는 대학 및 학과에 진학할 계획이라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동탄 국제 고등학교입니다. 전국에서 한 명 나온 만점자가 저와 가까운 곳에 있었다 생각하니 너무 신기했는데요! 불수능으로 알려진 수능의 만점자가 나온 학교, 궁금하지 않나요? 동탄국제고등학교에 모든 것! 알려드립니다.

동탄국제고등학교에 관하여

동탄국제고등학교는 2011년 개교하여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에 위치한 국제 고등학교입니다. 2021년 기준 9, 10, 11기가 재학 중이고, 한 학년당 약 2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8개 반씩 총 24 개 반이 있으며, 전원 2인 1실[4]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2019년부터 신입생들은 매주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탄국제고등학교는 작은 대학교 캠퍼스 정도의 크기인데, 고등학교 치고는 넓은 편에 속합니다.

동탄국제고등학교의 상징

동탄국제 고등학교의 로고는, 월인석보를 바탕으로 '동탄'과 '다름'의 머리글자인 'ㄷ(다른)'을 현대적으로 디자인한 것입니다. 아시아의 대표 색깔인 빨간색으로 색을 입혀 심벌을 완성하였습니다. 국제적인 사람이란 역사와 각자의 다름을 아는 사람이라는 멋진 말에서부터 비롯된 로고입니다. 교목은 소나무이고, 교화는 장미라고

합니다. 동탄국제고등학교는 특이하게도 교기가 있는데 바로 태권도입니다. 1, 2학년이 참여하는 Sparks Brain(아침 운동) 프로그램에서 1학년은 필수로 모든 학생이 태권도를 참여해야 하며 2학년은 헬스, 둘레길, 필라테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학년들은 매년 말 학교에서 국기원 심사를 봅니다. 국기원에서 직접 학교로 찾아오는데, 매년 간간이 불합격하는 학생이 있기도 합니다. 2학년 역시 원하는 경우 교사와 논의 후 참여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 조유빈 청소년기자



동탄 오산천에 수달이 산다

도심의 불빛에 오산천 물결이 반짝이며 일렁이는 순간 갑자기 새들이 날라가며 물결에 파문이 있다.
앗!! 수달이다. 오산천에 수달이 나타났다.

고향의 풍경. 오산천



동탄의 오산천은 사람의 공간인 신도시를 흐르는 도심의 하천이지만 다른 지역의 하천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도심의 하천에서는 보기 힘든 드넓은 하천변 수변 식생의 발달로 여울이 형성되어 모래, 자갈등이 퇴적해 S의 사행천을 이루어 어린 시절의 고향동네의 자연 형 하천의 모습을 유지하며 흐르고 있다. 오산천의 울창하고 풍요로운 녹색의 하천변은 코로나로 지친 도시민들이 휴식하고 힐링하며 평화로운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오산천에서는 산책을 하다가 고라니가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아름다운 모습도 볼 수가 있고 계절마다 다양한 생물들이 새롭게 나타난다. 그런데 오산천에서 생각지도 못한 야생 생물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경기 남부 수계에서는 첫 발견이고 나타나기만하면 화제가 되는 생물이....

오산천에 수달이 산다.

수달이다. 수달이 오산천에서 발견이다. 수달은 하천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천연기념물 330호,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인 생물로 물고기를 먹이로 하며 하천을 중심으로 살아간다. 수달이 서식한다는 것은 수달의 먹이인 물고기, 조류, 양서파충류, 갑각류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해 먹이 사슬 구조가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의 증거이다. 그래서 일까? 수달이 발견되면 수질도 깨끗하고 건강한 하천이라며 각 지자체에서 수달의 서식을 홍보하고 있다. 3년 전 서울의 한강 밤섬에서 수달의 흔적이 발견되자 정부 관계자가 나서서 수달의 서식하는 건강한 한강이라고 홍보하며 자연성 회복을 홍보하였다. 최근에는 창원시, 세종시에서 수달이 발견되자 전국 심포지움까지 개최해 홍보하며 수달이 살아가는 건강한 도심을 홍보하고 있다. 일본도 2018년 대마도에서 멸종했던 수달이 나타나자 정부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흥분해 있다.

동탄의 마지막 야생의 공간 오산천

오산천에는 수달뿐만 아니라 삶도 서식하고 있다. 삶은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호랑이, 표범, 늑대등 대형 육식동물이 사라진 우리나라에서 육상생태계의 최상 위 포식자이다. 삶이 서식한다는 것은 오산천에 삶의 먹이가 되는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었다는 반증이다. 그런데 지금도 개발 중인 신도시 동탄에 어떻게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공간으로 부활을 하였을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간섭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과거에 오산천은 우리가 많이 보던 시골의 작은 하천이었다. 하천 주변은 논과 밭으로 형성되었고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전형적인 시골의 모습이었으나, 신도시 개발로 인해 생물들의 서식지가 사라지면서 자연스레 오산천, 반석산으로서 서식지가 형성된 것이다. LH가 신도시 개발 후 하천 정비를 하겠다며 약 20년 이상의 오랜 세월을 방치한 결과 오산천은 다양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으로 공간으로 재탄생 된 것이다. 오산천은 동탄의 생물에게는 마지막 피난처이자 서식지인 것이다.

동탄의 환경을 지켜주는 오산천의 녹색 공간

오산천은 풍경이 아름답고 자연환경이 건강한 하천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하천이 아니다. 사람의 간섭에 의해 언제라도 환경이 바뀔 수 있는 위태로운 하천이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상식이지만 오산천은 물길은 신갈저수지에서 멈추었다. 농어촌 공사가 오산천의 물을 농업용수로 관리하면서 관로를 통해 평택으로 흘려보내고 있다. 오산천은 농어촌공사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중간의 물길이 잘리어진 것이다. 그러면 오산천을 흐르는 물은 어디에 발원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오산천 상류 쪽의 산업단지에서 배출하는 산업방류수인 것이다. 오산천 상류의 신갈저수지 근처에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고 이곳에서 20~40도의 고온의 산업방류수를 배출하고 있다. 고온의 산업방류수로 인해 오산천의 물길은 겨울에 김을 무럭무럭 풍기며 흘러 안개처럼 묘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여름에는 냄새가 나지만 중류로 내려오면서 냄새가 안 난다. 그 이유는 뭘까. 오산천은 하천변의 다양한 식생군락과 여울의 자정작용으로 정화되기 때문이다. 불안정한 동탄의 환경을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키는 폐와 콩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미래가 불투명한, 위기의 오산천

사람의 간섭에서 벗어난 건강한 자연형 하천으로 안정화된 오산천이 위기에 처했다. LH가 투자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다는 단순한 논리로 수백억의 거금을 들여 3년 동안 공사를 한다고 한다. 전국의 하천이 고향의 강 사업, 생태하천 정비라는 명목하에 지역의 환경적 특성 무시하고 직선화되고, 정원처럼 꾸며져 전국의 하천이 비슷한 모습으로 개발되었다. 오산천은 이러한 하천개발에서 벗어났기에 다른 도심에서는 볼 수 없고 동탄에서만 볼 수 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되살아났는데 이곳 역시 자본 논리에 의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오산천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개발이 된다면 오산천에 살아가는 생물에게도 치명적이지만 동탄의 쾌적한 환경이 파괴되어 우리의 삶도 위협 받을 것이다. 자정작용으로 환경도 지켜 주며 평화로운 풍경을 연출하는 오산천 녹색 공간의 모습을 미래에는 사진이라는 기록 속에서만 볼 수 있을 것이다.

미래세대와 공유해야 할 자연유산 오산천

사대강 사업 이후 전국의 하천이 고향의 강 사업이라는 이름하에 난 개발되어 사람 중심의 하천으로 공원처럼 비슷한 모습으로 획일화 되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하천 정비 사업 이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자 다시 자연형 하천으로 되돌리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오산천의 녹색 공간이 지금처럼 유지가 되면 각 지역의 하천 개발의 모범 사례로 주목 받고, 세월이 흐를수록 지역의 자연자원으로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오산천으로 산업방류수를 흘려보내는 삼성전자도 예전에는 오산천의 수질, 환경보호 등에 소극적이었으나 지금은 수달이 나타나자 유튜브를 통해 오산천의 수달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업체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오산천의 환경을 보존하여 생명을 품고 세대를 이어가야 한다. 야생생물의 마지막 피난처이자 동탄의 허파 오산천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다. 자연에서 느끼는 풍요로움을 야생의 생물들과 함께 교감하고, 자연이 주는 평화로움을 미래세대와 함께 공유해야 한다.

우리도 오산천의 풍경이 되어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



동탄의 폐 역할을 하는 반석산과 오산천 풍경, 사대강 사업, 고향의 감사업등의 하천 개발로 도심을 흐르는 하천 중 이러한 자연형 하천은 거의 사라졌다.



오산천의 수생 식물, 상류 산업단지의 산업방류수를 정화하여 건강한 수생태계를 보존한다.



신갈저수지에서 물길이 막혔다. 하류로 물을 흘려보내지 않아 하천은 마르고 물이 무성하게 지랐다.



고라니 젖먹는 모습



겨울에 월동을 하는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새



오산천의 넓은 하천변은 흙수가 나오 물을 수용해 동탄은 흙수 피해를 입지 않는다.
(왼쪽 화면은 흙수가 났을 때 모습, 오른쪽 화면은 일상적인 모습)

담배꽁초 아무데나 버리지 마세요!!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에는 소담 기자단에서 하는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이 있다.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평소 보지 못했던 쓰레기들이 보인다. 열심히 쓰레기를 줍고 있었는데, 한 S 아파트의 주위 화단에서 엄청난 양의 담배꽁초가 발견되었다. 정말 화단의 낙엽과 담배꽁초의 비율이 1:1일 정도였다.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웠다. 만약 내가 이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혹여 발견했더라도 줍진 않을 것이다. 봉사 활동 중 발견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함께 봉사를 했던 한 회원님의 말에 따르면, 바다로 가는 미세 플라스틱의 대부분은 담배꽁초라고 한다. 나는 봉사활동이 끝난 후 담배꽁초의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한 인터넷 사이트에 검색해 보았다. 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대부분 담배의 필터 부분은 '셀룰로스아세테이트'라는 플라스틱 성분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외부로 노출되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된다.

또, 이것이 자연에 배출되면 결국은 강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가고 수중 생태계를 교란하는 역할을하게 된다고 한다. 이로써 해산물이 삼킨 미세 플라스틱은 다시 우리의 식탁에 올라올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가 먹고 있던 해산물이 미세

플라스틱을 삼켰다는 게 충격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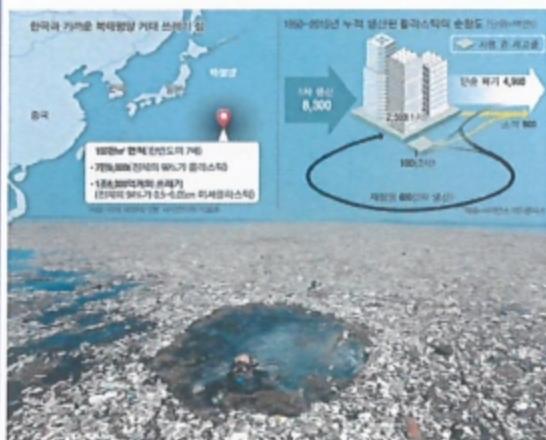
담배를 피우는 것도 환경에 좋지는 않지만 담배를 피우더라도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한곳에 모아두는 것이 환경을 지키는 방법인 것 같다.

/ 최지인 청소년기자



미세플라스틱의 습격

우리나라 인구 1명이 1년간 사용하는 플라스틱 양은 얼마나 될까??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폐트병은 평균 96개 비닐봉지는 460개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세계에서 1위~3위 안에 드는 수치이다. 많이 부끄러운 일이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플라스틱의 사용도 늘어났고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배달음식등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쓰레기 문제는 이미 한계점에

도달하였다. 북태평양에 떠 있다는 우리나라 면적의 7배에 달하는 거대 쓰레기 섬 사진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용한 플라스틱을 비롯한 쓰레기들이 그대로 바다로 배출되어 해류를 따라 돌고 돌다가 거대한 쓰레기 섬이 된 것이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바다로 직접 배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이다.

바다로 흘러간 플라스틱은 끊임없이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결과 우리가 먹는 소금, 조개류, 생선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다. 한 방송에 따르면 우리가 즐겨먹는 바지락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34개나 발견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바다에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되는 경로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플라스틱이 부수어지면서 발생되기도 하지만 치약이나 품클렌징 제품들에 포함된 스크럽, 수세미, 행주, 물티슈, 담배꽁초(필터)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모든 것들이 모두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생물들에게 영향을 준다.

미세 플라스틱이 미세먼지 못지않게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잠시 빌려 쓰는 자구를 이런 상태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 플라스틱이나 비닐봉지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로 그것들의 생산단자가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쉽게 쓰고 버리면 다시는 이전의 자구로 돌려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제로 웨이스트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배달용기 대신 다회용기로 포장해오기, 플라스틱 제품 줄이기, 비닐 재사용하기, 대나무 칫솔, 소창 행주, 삼베 수세미 사용하기 등 일상에서 조금씩이라도 바꾸어 나가야 한다.

물론 무분별한 대규모 어업에 대한 규제나 해양 쓰레기 배출에 대한 정부나 국제사회의 관리도 필요하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부터 바꾸어 나간다면 정부도, 국제사회도 더욱 발 빠르게 움직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자.

s961119@naver.com / 신춘희 기자

심각한 환경오염

요즘 들어 환경오염이 많이 심각해져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오염은 환경 문제에서 가장 먼저 이슈화된 문제로 시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오염은 사람의 활동에 의해 환경에 해를 주는 물질이 방출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물 오염은 물에 해로운 물질이 방출되는 것을 말하며 물 오염이 되면 수질이 저하된다. 오염은 지극히 인위적인 개념으로 물질의 특성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면 질소는 육상에서는

식물의 생장을 촉진하는 비료 성분이 되지만 물에서는 과다하면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오염물질이 된다. 최근 생물 다양성 개념의 대두로 오염은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는 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환경오염의 원인으로는 공업의 발전, 옮지 못한 생활 습관을 끊을 수 있다. 옮지 못한 생활 습관으로는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거나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듯한 일들을 말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스스로

깨닫고 반성하여 고칠 수 있는 문제이다. 스스로 하나하나 절제한다면 우리의 환경을 더 낫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가까운 곳은 버스나 택시 대신 걸으며 계절을 느끼고, 카페에선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한다면 뿐만 아니라 자연은 인간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무엇보다 소중한 자원이자 선물이다. 현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소연 청소년기자

‘솔빛나루역(가칭), 소통으로 통할 수 있을 것인가?’

화성시는 12월 1일 철도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철도, 소통으로 통하다’ 행사와 관련해 온라인 사전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철도, 소통으로 통하다’는 화성 동부 및 동탄지역 철도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철도 현안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된다.



화성시는 행사 당일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주민 의견

청취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보다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온라인으로 사전 의견을 접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견 제출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화성시 홈페이지 최상단 배너에 형성된 ‘의견 제출’ 버튼을 통해 작성 및 등록이 가능하다.

‘철도, 소통으로 통하다’는 오는 12월 15일(근로자종합복지관)과 16일(화성시 나래울 종합사회복지관)로 예정돼 있으며 ▲GTX-C 노선 병점

‘철도, 소통으로 통하다’ 온라인 사전 의견 수렴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의견을 정해 반영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별지 담당 계획팀 사번 내 주신 의견 첨부에 현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폭넓은 의견 청취를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해당 지역(면면(면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 사전 의견 작성 개요 -

- 사전 의견 제출 기간 : 2021. 12. 1.(수) 09:00부터 ~ 2021. 12. 10.(금) 16:00까지
- 의견 제출 방법 : 철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지원 사전 누리나
- 의견 제출 방법 : 해당 의견 제출하기 클릭 후 작성 및 등록
- 기타문의 : 화성시 대중교통 협진단 홀도전 평화로 31-5169-7073

※ 의견 제출 시, 성명·연락처·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개인정보는 비공개 처리되며, 하위 및 중복·비슷한 글은 차기 평가 및 타당성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의견 제출 시, 성명·연락처·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을 위한 협상 논리 구상 ▲ 병점역 환승 여건 개선을 위한 환승센터(안) 구상 ▲ 병점~봉담, 도시철도 추진 방안 ▲ 솔빛나루역(가칭) 신설의 성공적 추진 조건 ▲ 동탄1인덕원선 관내 역사 현안 논의 ▲ 동탄트램, 병점역 연결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있다.

동탄2동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솔빛나루역(가칭) 신설의 성공적 추진 조건’에 대한 의견으로 12월 10일

18시 현재 615건의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다.

000님은 솔빛나루역(가칭)의 역사 신설과 타당성 제고를 위한 대책 의견으로,

1)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82조 가목 다만, 역 신설에 따른 역세권개발 또는 택지개발 등 주변지역 개발효과가 큰 경우에는 전액 당해 수익자에 의한 부담을 조건으로 허용 가능한 지침을 참고 2) 신설하려는 전철역의 주변 택지개발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규모에 해당하면, 총사업비 관리지침 49조 2항 2호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상위계획의 변경, 법정 사항의 반영 등

외부적인 요인에 있는 경우 참고 3) 솔빛나루역(가칭)을 상위계획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수립하고 총사업비 관리지침 82조 가목과 광역교통법 제11조에 의거한 재원을 확보 후 철도역 신설을 위해 총사업비 협의 요청 4) 위의 추진 방안은 1호선 연장이 선결 조건이기에 실시설계 총사업비 협상에서 1호선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동탄2동 주민들은 화성시에서 진행하는 ‘철도, 소통으로 통하다’ 행사를 통해 솔빛나루역(가칭)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중앙정부 해당 기관에 잘 전달되어, 솔빛나루역(가칭) 설치가 확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kss9811@hanmail.net / 김영철 기자

‘새강마을사거리와 반송초교사거리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있어...’

동탄은 신도시답게 도로가 잘 되어있다. 노작로, 반석로, 중앙로, 10용사로는 많은 차들이 원활하게 다니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출, 퇴근시간대에는 얘기가 다르다. 새강마을 사거리와 반송초교 사거리는 교통체증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오산, 봉담, 북오산IC등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도로를 꽉 메우고 있다.

오산교육지원청 사거리에서부터 밀린 차량은 속력을 내지 못하고 신호가 바뀌어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교통체증의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자.

꼬리물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신호가 파란불일 때 진입했으나 통과하지 못하고 꼬리물기가 될 수 있다.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시 앞차와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차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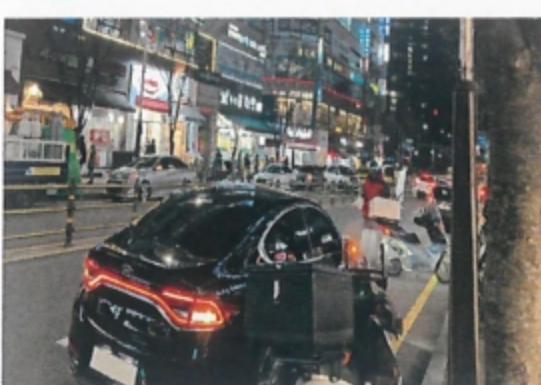


정지가 예상되면 반대편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진입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나까지는 지나가도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과

다음 신호까지 기다리기가 귀찮아서 진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신호가 노란색불로 바뀌는 순간이나 혹은 바뀐 직후에 앞차와 붙어 통과하면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따라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범칙금 6만원 및 별점 15점이 부과된다. 제대로 파란불 신호를 받고 출발했지만 교차로에서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꼬리물기로 간주하여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교통체증과 사고의 위험이 있는 꼬리물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교차로에서는 미리 교통 흐름을 예상해서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지나가지 못할 것 같으면 진입해서는 안 된다. 앞차와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진입 가능한 충분한 공간이 있을 때 움직여야 한다. 무리한 진입으로 CCTV에 찍히는 경우가 없도록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운전해야 한다.

끼어들기



도로 진입, 출로에서나 막히는 구간에서 앞지르기를 하여 끼어들기를 하면 교통흐름과 안전운전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불쾌감을 주기도 하고 눈치를 받기도 한다.

불법주정차

나루상가쪽과 솔빛상가 앞에는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하나의 차선을 막고 있어서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통과한 차량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차선을 변경해야 하므로 사고의 위험이 상당하다. 상가 뒤쪽에 솔빛공영주차장과 나루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잠깐 주차를 하고 볼일을 보기도 한다. 이런 나만 편하려고 하는 안일한 생각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용을 해야하고 되도록이면 귀찮더라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또 나루 상가 ****빌딩으로 들어가려는 차량이 나오는 차량과 뒤섞여 길게 늘어선 차들 때문에 우회전하려는 차들이 그 뒤에 계속 줄을 서게 된다. 또 이런 줄 때문에 나루 공영주차장에서 악순환이 계속 이어져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 마을을 좀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

0707wisdom@naver.com / 오금희 기자

요즘 대세, 골프를 알아보자!

텔레비전 예능을 보면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다. 연예인들이 한적한 시골에서 불을 지펴서 밥을 해 먹고 직접 농사를 지으며 소소한 생활을 하는 생활 예능부터 인기 운동선수들이 캠핑을 가거나 게임을 하며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는 예능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최근 눈여겨볼 만한 예능 중에는 골프 예능이 있다. 일부 특권층만이 누리는 스포츠만 같았던 골프가 이제 예능을 통해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오고 있다.

골프 입문에 대해 알아보고자 용인대학교 골프지도학과 박병용(37세) 교수님을 만나보았다.



〈박병용/용인대학교 골프지도학과 교수,
동탄GDR 3호점 경장〉

질문 : 안녕하세요. 요즘 골프가 대중화되고 있는데 골프가 어떤 스포츠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답 : 안녕하세요.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문명적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신체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개인의 건강악화는 물론 사회적, 정서적 측면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체적 활동을 독려하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골프는 지구상 유일하게 남녀노소(男女老小)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기본적인 신체활동만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운동이기에 가족들, 친구, 지인들, 비즈니스 업무 등 사회 곳곳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골프는 생각과는 달리 목표에 쉽게 도달할 수 없기에 오히려 극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는 매력이 있는 운동이지요. 최근에는 스크린 골프를 통해 골프 대중화 문화에 한 획을 그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크린 골프 현상을 대체한 실내 연습장도 공급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초보자를 벗어나면, 자연스럽게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 처음 골프를 시작 할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답 : 가장 첫 번째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경제적 부담인데 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대부분 골프를 처음 접하게 되면 골프클럽 구매에 따른 부담을 많이 들

생각하게 되는데, 그 것은 4~6개월 뒤에 생각해도 됩니다. 초등학생이 대학생 옷을 입으면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것 처럼 안정적인 스윙을 익히는데 평균 4~6개월 정도 소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습장에 구비되어 있는 연습클럽으로 충분히 연습을 한 후에 자신에게 맞는 클럽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골프화 구매는 체중이동을 배우는 과정에서 지면반력을 이용하고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입문 2~3주 후 구매해도 좋을 듯 합니다.

질문 : 연습장 선택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답 : 동탄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도시입니다. 시내 한 가운데 골프장이 존재하기에 자연스럽게 골프에 대한 관심도가 타도시에 비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내연습장과 실외연습장 그리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GDR이카데미가 있습니다.

수요자들이 골프연습장을 선택하는 폭은 다양하지만 전문적인 레슨 프로가 배치되었는지와 체계적인 회원관리 시스템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정확한 Data와 피드백 제공 프로그램이 가능한 시스템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회원들의 편의와 기량을 올리기 위해 운영진들은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서야 한다는 것이죠.

질문 : 마지막으로 꼭 지켜야 할 골프 매너는 어떤게 있을까요?

골프는 기본적으로 상대를 배려해주는 운동입니다. 라운딩을 진행하는 동안 3~4명이 한 팀이 되어, 라운드를 즐기고 또는 시합도 하게 되는데, 2019년도 제정된 골프규칙은 대부분 상대방을 배려하고 시간을 절약하는 원칙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다른 플레이어가 플레이 할 때에는 절대 상대 플레이 시이나 청각에 불편함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상대 플레이어보다 먼저 플레이 할 때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꼭 여쭤봐야 합니다. 상대한 대한 예의가 기본적으로 함양된 운동이기 때문에 골프를 처음 접할 때 조금씩 배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잘 쳤을 때에는 다 같이 나이스 샷!, 굿 샷! 등 환호해 주는 것도 좋은 라운딩에 활력이 될 수 있습니다. 골프경기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각자가 심판의 역할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을 경계할 필요도 없지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과 자세가 있다면 즐거운 라운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s961119@naver.com / 신준희 기자

동탄2동자치센터 프로그램 – 기체조

몸을 바로잡아야 건강을 잡는다!

산중비전으로 전해오던 우리 고유의 무예 기체조(기천) 건강수련법으로 다시 태어나다!

스트레스와 질병, 무기력으로 지친 현대인을 위한 최고의 자가수련법

산중비전으로 전해오던 우리 고유의 무예가 우리를 생활속에 건강수련법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이름하여 기체조(기천).

한의학에는 통증불통 불통증통이라는 말이 있다. 해석하면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말이다. 길이 잘 통하면 몸이 스스로 흡수하고 운반하고 조절하고 배출하고 또 필요하면 전투를 벌여서 건강을 유지시킨다. 문제는 불통 즉 몸의 길이 막히는데 있다. 기체조(기천)는 이 몸길과 숨길을 열어 불통의 경락을 통하여 해주는 전통무예이자 건강수련법이다.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기체조

기체조는 정적인 수련, 동적인 수련, 마음의 수련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적인 수련원리는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고 형을 완성하는 단계이다. 즉 정신이 안주한 터인 몸의 기본 틀을 완성하고, 몸 안의 기운을 충전하여 기혈순환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단계이다. 동적인 수련원리는 몸을 움직여 기혈을 돌리고 선조들의 몸짓을 익히며 마을의 글씨를 허공에 몸짓으로 표현하는 단계이다. 마음의 수련원리는 몸 공부를 통해 인내와 끈기의 심성을 기르고, 자기의 고통을 참아 자아를 완성하여 타인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수련을 닦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단계이다. 이세가지 수련을 하는 동안 몸 안에서 바람, 불, 물의 흐름과 정중동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다.

기체조는 최고의 자가치유법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는 늘 환자들로 넘치고 있으며,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질환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뭘까? 물론 난치성 질환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매우 많다. 과거보다 현대사회가 더욱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개인에게 주고 있으며 사회가 빨라질수록, 문명이 발전할수록 스트레스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리적인

기능이 있다. 이를 싸우거나 도망치는 반응이라고 한다. 오래 전 원시시대부터 인간은 위험과 스트레스를 마주치게 되면 즉각적으로 싸울 준비를 하거나 싸울 상대가 너무 강하면 아예 도망을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몸은 혈압이 높아지고, 심박수가 빨라지며 호흡이 가빠지고, 동공이 확장되며, 혈류량이 늘어난다. 이 때문에 고혈압, 심근경색, 중풍 등등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 즉 매일매일 다가오는 스트레스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점점 체내에 쌓여 수많은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방법들을 접하게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최고의 방법은 기체조이다. 기체조는 내 스스로 나를 지키고 진리와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 된다는 점에서 최고의 자가치유법이라 하겠다.

동탄2동 기체조 수업

동탄2동의 기체조 수업은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3~4개 반이 개설 될 정도로 인기가 높은 강좌였습니다. 중, 장년층뿐 아니라 노년층까지 부담 없이 즐겁게 운동 할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전만큼 활발하게 강좌가 진행되지는 못하지만 야외에서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며 저와 함께 꾸준히 운동하고 있는 분들, 줌(ZOOM)을 통해 화상수업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화상 수업의 경우 대면 수업만큼 생동감 있게 진행되기 힘들어 처음에는 회원들이 좀 어색해 했지만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쉬지 않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시대 건강과 면역이 최우선!

저는 20여년간 기천문 수련과 기체조를 가르치며 한결같이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복합문화센터, 유명 대학의 최고경영자과정, 국가행정연수원 등 다양한 곳에 출강하며 사람들의 건강과 면역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몸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건강과 면역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직접 실천하려는 노력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고 확실한 건강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기체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동탄2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김남진



–동탄2동주민자치센터 비대면(ZOOM)수업–

나루마을 신도브래뉴 입주자대표회장, 김종영 인터뷰

▶ 공동주택으로서의 아파트의 개념은?

아파트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으로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 입주자의 개념은?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개념은?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의결기구를 말합니다. 아파트는 한 나라의 축소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 관리의 책임을 맡을 대표를 선출하고, 선출된 동대표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아파트 관리 운영을 전담합니다.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집행합니다.

▶ 아파트 민주주의란?

우리는 누구나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기에 나라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있을 때 길거리로 나가 민주주의를 외치고 대통령 선거 등에는 관심이 높은 편이지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내가 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파트 공동체가 활성화되어야 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의 보람은?

무엇보다 나루마을 신도브래뉴가 명실상부한 살기 좋은 아파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년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맡아 우리 입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입주민 한분 한분의 마음을 대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 그동안 아파트를 위해 하신 일들은?

첫째, 나루마을신도브래뉴 아파트 자율방범대를 운영하여 단지 내 청소년들을 선도하였으며 단지 주변 청결을 위해 환경미화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동탄

지구대와 MOU를 체결하여 단지 주변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둘째, 동탄2동 회장단 연합회 활동을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가칭 솔빛나루역 설치를 위해 국토부 항의 방문하여 시위했던 것은 보람 있었습니다. 셋째, 나루마을 신도브래뉴 아파트의 아름답고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정문 진입로에 사계절 테마를 담은 초화를 식재하여 주민 여러분이 사진도 찍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저 또한 행복했습니다. 넷째, 길고양들을 위해 집을 마련해서 길냥이 어미들에게 쉽게 먹이를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화성시 최초로 플로깅 봉사를 위해 조직된 나루마을 신도브래뉴 봉사단으로 활동한 점이 무엇보다 기억에 남습니다. 입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우리 아파트를 너머 우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함께했던 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지구 살리기를 실천하면서 우리 입주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켰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 한마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그 아파트의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루마을 신도브래뉴의 미래를 책임지는 회장이라는 본분을 한시라도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과 정이 넘치는 우리 입주민들이 동심동덕의 마음으로 서로 어우러지는 아파트,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더불어 계속 머물러 살고 싶은 아파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rite4purejoy@naver.com / 오진주 기자



코로나도 잠시 잊게 할 아름다운 힐링 영화

다가오는 겨울, 영화와 함께 준비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바뀌어 버린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 이전에는 주로 바깥에서 하는 여가 활동을 즐겼지만, 요즘은 집에서 즐기는 일들이 많아졌다. 그 중, 특히 가장 힐링이 되고 지친 마음을 달래 주는 것은 영화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힘든 생활 속에서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연말을 보낼 수 있는 따뜻한 영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리틀 포레스트

개봉- 2018.02.28.

등급- 전체 관람가

출연- 김태리, 류준열, 문소리, 진기주

시험, 연애, 취업 뭐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고향으로 돌아온 혜원은 오랜 친구인 재하와 은숙을 만난다.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재하', 평범한 일상에서의 일탈을 꿈꾸는 '은숙'과 함께 직접

키운 농작물로 한 끼 한 끼를 만들어 먹으며 겨울에서 봄, 그리고 여름, 가을을 보내고 다시 겨울을 맞이하게 된 혜원, 그렇게 특별한 사계절을 보내며 고향으로 돌아온 진짜 이유를 깨닫게 된 혜원은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데…

도심을 떠나 시작되는 공간에서 땀 흘려 땅을 일구고 그것들을 소중하게 다루고 정성껏 손질하여 예쁘게 담아 요리하고 먹는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체험 해 주게 한다. 또한 친절한 레시피로 가족들과 함께 간단한 음식들도 함께 만들어 볼 만하다. 요즘 영화들처럼 억지로 웃음을 강요하지 않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행복들을 알려주고 있고 김태리의 해맑고 귀여운 모습과 류준열의 미소와 다정함은 겨울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봄의 따스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힐링 영화이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이로 인해 날려버렸으며 하고 겨울에 내리는 눈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



/ 황수현 청소년기자

집밥 스스로 챙겨먹기!!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학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었고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고 계셔서 자연스럽게 집에서 스스로 식사를 챙겨 먹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특별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졌다.

유튜브를 보고 따라 해 보기도 하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레시피를 찾아보게 되었다. 가장 먼저 관심 있게 따라 해 본 음식은 볶음밥과 계란말이였다. 물론 냉동 볶음밥이나 밀키트도 가끔 먹기는 했지만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해 보았다.

처음부터 쉽게 되지는 않았다. 계란을 말기도 전에 타버리기도 하고, 볶음밥을 하다 보면 프라이팬 밖으로 흘리는 밥이 더 많아서 엄마의 잔소리를 듣기도 하였다. 내 음식의 최대 고객이며 맛 평가 요원은 동생이다. 동생이 음식을 먹어보고 좋은

평가를 내리면 기분이 좋다.

그러나 음식을 하면 할수록 관심이 생겨났고 파기름을 낸다든지, 간장을 놀린다든지 하는 요령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할 줄 아는 음식의 가짓수도 점점 늘어났다. 김치볶음밥, 감자 볶음밥, 계란말이, 떡볶이, 두부조림은 만족스러울 만큼 잘하게 되었다. 엄마가 반찬을 만들어 놓으시거나 국을 끓여 놓으시는 날에는 학교에서 먹는 것처럼 미니 식판에 예쁘게 담아서 먹었다. 비빔밥 재료가 있으면 뚝배기에 골고루 담아서 돌솥비빔밥처럼 먹기도 하였다.

이번 학기에는 등교하는 날이 많아서 스스로 챙겨 먹는 날이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먹을 교를 해서 맛있는 급식을 먹게 된 것도 더욱 감사하게 느껴졌다. 집 밥 스스로 도전해 보자.

/ 최정인 청소년기자

베이비 박스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가?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베이비 박스, 과연 금지해야 할까?

아이를 유기, 방치, 폭력적인 사건을 기사에서 한 번씩은 접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렇듯 아이를 유기하는 사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고민을 덜어주는 시설이 생겼다. 바로 베이비 박스이다. 베이비 박스란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마련된 상자이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가면 상담사들이 벨소리를 듣고 즉시 아이를 보호한다. 또 아기를 두고 간 부모를 만나 상담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4명의 베테랑 상담사들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즉각적인 상담으로 베이비박스를 찾은 부모 중 10~15%는 마음을 바꿔 아이를 데려간다. 필요하다면 임시 거처, 경제적 지원, 베이비케어 키트를 통한 양육 물품을 지원한다. 1896명.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주 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로 온 아기의 수이다. 결코 적지 않은 수의 아이들이 이곳을 거쳐 다시 부모의 품으로, 보육원으로, 아니면 새로운 가정을 찾아간다. 많은 아이들이 베이비 박스를 다녀간다는 것은 필요한 시설을 뜻하는데 베이비박스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동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진 베이비 박스, 도대체 무슨 문제점이 있는 걸까? 현행법상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버리는 행위는 영아유기에 해당하는 불법이다. 일단 미혼모·아동 단체를 중심으로 베이비박스가 인권을 훼손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아동이 자신의 출생기록을 가질 권리를 침해하며, 입양인이 친구 생부모를 찾고자 할 때 필요한 중요 기록을 볼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도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박스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반면 베이비박스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아동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화장실이나 길거리에 함부로 버려져 사망하는 유기 아동들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의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베이비박스는 사실상 모든 아동기관·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다. 아기를 유기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작용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인터뷰에 응했다. 이렇듯 베이비 박스는 아이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불법장소라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베이비 박스가 없더라면 유기되는 아이들이 걱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그렇기에 베이비 박스를 대신할 시설을 만드는 것은 사회복지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 정지인 청소년기자



겨울밤, 어떤 책을 읽을까?

사진 한 장으로 가족의 마음을 만나는 책들



상큼한 쿨을 깨먹으며 무심코 지나치던 사진 한 장에 담긴 이야기들을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할머니의 삶과 엄마의 추억과 아이들의 사랑이 담긴 이야기가 영화보다 더 재미있을지도 몰라요.

『사진이 말해주는 것들』, 퍼트리샤 맥리클란

추천 대상: 초등 5학년 이상~성인

사진은 좋은 나쁜든 조각난 시간을 멈춰 구해주지. (『사진이 말해주는 것들』, 118쪽) 사진은 시간이 멈추어져 있습니다. 멈춰진 장면은 왜곡되고 훼손된 기억, 잊어버린 기억들을 되살려주곤 합니다. 저니가 아기 때 받은 사랑에 대한 기억은 잊어버렸지만 사진 속에 보이는 엄마의 사랑스러운 눈빛을 통해 모성을 회복해가게 돼요. 고양이가 싫다고 말씀하시던 할머니도 아기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보살피는 사진 속에서는 따뜻함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저니는 사진을 통해 이렇게 치유하고 성장해갑니다. 누군가가 그립고도

원망스럽나요? 그분과 찍었던 사진을 펼쳐보세요. 그때 그 미소를 보며 마음을 토닥여보세요.

『밝은 밤』, 최은영

추천 대상: 중학생 이상~성인

『밝은 밤』에서는 주인공이 할머니를 통해 할머니의 어머니, 증조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할 매개가 된 것이 한 장의 흑백사진인 거죠. 증조모와 할머니, 그리고 엄마까지 이어지는 여성으로서의 고단한 삶을 통해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듯 낯설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와 어머니의 이야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나’를 제대로 찾고 싶다면 그분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는 게 필요할지도 몰라요. 옛 사진첩을 펼쳐놓고 우리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이야기를 깊숙이 들어보는 시간 어떨까요?

bluujone@gmail.com / 안지원 기자

이번 호에서 소개해 드릴 책은 『사진이 말해주는 것들』과 『밝은 밤』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권 모두 사진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겨울밤, 따끈한 고구마와

동탄2동의 범죄예방 최선봉에 동탄2동 시민방범순찰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1. 동탄2동 시민방범 순찰대 소개

동탄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한 다음해인 2009년 1월부터 동탄2동의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에 목적을 두고 탄요공원에 사무실을 두고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노작공원 사무실을 두고 총 27명의 대원이 5개조로 나누어 주5일(월~금) 순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시간은 밤 8시에서 12시로 우범시간대에 집중하여 순찰을 돌고 있으며 2인 1조로 순찰차운행과 도보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2. 동탄2동 시민방범 순찰대 활동 소개

-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동안에 합동순찰과 심폐소생 기술과 같은 꼭 필요한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참가 학생에게는 봉사시간을 부여받고, 봉사의 참의미를 깨닫고,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동탄2동의 주요행사에 교통질서봉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 탄요축제 등, 교통체증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달려 갑니다.)

- 편한 수능시험이 실시되는 날에는 고사장앞에서 교통자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기적인 합동순찰(동장님, 주민자치위원과 단체장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우리동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또한 순찰대원의 단합을 위한 봄철 체육대회와 여름, 가을철 야유회를 실시하여 대원 상호간 이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부터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공원, 산책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에 순을 돌면서 소독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3. 이상과 같이 많은 일을 대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단합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봉사에 함께하고 싶은분은 연락을 주시면 함께 봉사할 수 있습니다.

(시민방범순찰대 대장 이문영 010-7600-2412)

소담기자단

단장 : 오금희
부단장 : 신지원
편집장 : 신준희
홈페이지관리자 : 성주향

광고문의 : 동탄2동주민자치센터 031) 5189-4756
<http://dongtan2dong.co.kr>

동탄2동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http://dongtan2dong.co.kr>

동탄2동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동탄2동 소식 및 화성시소식, 프로그램소개 등을 확인하시며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동탄2동 소식지 기자단 모집

- 대상 : 청소년 / 일반
- 인원 : 충원시까지
- 문의 : 031-5189-4756
동탄2동주민자치센터

“도전은 아름답다”